

특별기고

경기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①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



김정안 전문위원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행정구역 개편안이 현재의 행정구역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지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분도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논문을 연재하여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연재할 논문은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안 교수의 논문으로 '경기도(가칭)신설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다. (편집자주)

(국문초록)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히 크고 이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나타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론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주민의 편의성 제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 외면된 채 정치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발전, 주민 편의성 제고의 관점에서 분도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필요조건), 재정력과 비용추정 등 분도에 따른 제반여건(충분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다양한 의견에 의거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나는 경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당사자간에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유권자 수와 수도권으로서의 위상에 의해 선거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당사자들 간의 분도의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이 찬반론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편의성,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 외면된 채 정치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1. 서론

경기도는 인구·면적·재정력 등에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히 크고 이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가 나타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기상조·비용과다·지역균형 심화 등을 이유로 한 반론이 거세다. 분도에 의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나는 경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초래됨에 따라 당사자간에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유권자 수와 수도권으로서의 위상에 의해 선거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이에 당사자들 간의 분도의 찬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이 찬반론이 고조됨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편의성, 효율적인 지방자치

실현 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이 외면된 채 정치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개발, 지역경제발전, 주민 편의성 제고의 관점에서 분도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하고(필요조건), 재정력과 비용추정 등 분도에 따른 제반여건(충분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도의 필요조건들을 분석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북부 주민들의 불편, 남북 개발 북부 보존 정책의 의한 북부지역의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 지역생산업의 저조와 과다한 역의 유출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거점전략(growth center strategy)에 의해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⑱

경관생태학과 우드랜즈(Woodlands)의 사례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

미국은 생태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앞서 있는 국가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국민적인 자부심으로 여기고서 생활공간 자체를 아생지로 보존하려는 인식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생태환경 내로 귀속시켜려는 미국인들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에코빌리지(ecovillage)의 실현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고 있는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가장 모범적인 생태도시 공동체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텍사스의 우드랜즈(Woodlands), 뉴욕의 이타카(Ithaca), 그리고 버지니아의 로던(Loudon)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에코빌리지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지역에 적합한 생태도시의 조건을 합목적으로 파악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우드랜즈는 생태학적 토지이용과 건축공학 및 도시공학의 융합, 경제적 지속성을 갖춘 미국의 생태공동체의 모델로서 좋은 사례를 제공한다.

우드랜즈는 텍사스의 중심 도시인 휴스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면적은 27,000에이커 정도이고, 우리나라 분당보다 규모가 작다. 이 공동체는 1970년대 초에 계획을 착수하여 198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심 상업지구의 건설이 진행 중이다.

우드랜즈 개발팀이 "울창한 숲이 가장 큰 진화지역이다"고 단정하고 있듯이, 우드랜즈는 전체적으로 숲의 도시라는 느낌을 전달한다. 우드랜즈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살펴보면 그로간의 풍차(Grogan's Mill), 퓨마의 냇가(Panther's Creek), 코크란의 십자로(Cochran's Crossing), 인디언의

활용하게 되므로 도로 자체는 일자형 도로가 아닌 구불구불한 도로로 이루어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드랜즈가 바람직한 에코빌리지로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사업자인 미첼의 생태도시에 대한 깊은 철학을 들 수 있다. 그는 생태학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 지평에 충실하면서 먼저 토지를 점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도시의 계획을 입안하여 사회, 경제적 으로 기반시설을 충실히 갖춘 생태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미첼에너지주식회사의 사장이기도 한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개발업자이지만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코빌리지를 개발하였다. 그는 계획된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하여 생태적으로 최대한 보존이 가능한 최적의 주거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내에서 경제활동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첼은 거주목적 계층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식을 얻었다. 그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 때문에 교외에 거주하면서도 교육, 문화, 경제 활동을 찾아 다시 도심 속으로 이동하는 상류층과 중산층의 이중적인 생활 패턴을 주목하고서 우드랜즈에 자립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윈스톰으로 해결하는 주거모델을 개발한 것이었다. 거주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 커뮤니티 내에 상거래를 원활히 영위하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고용 창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다수의 여가 및 리조트 시설이 설치되고, 각종 쇼핑 몰과 음식점, 호텔,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이 설립되어 거주민들의 자립적인 사회활동과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갈등의 해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물론 우리지역은 우드랜즈의 사례를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요소가 많다. 서울의 중산층 이상의 거주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자연환경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첨단 특화산업을 유치하여 이 단 전체의 자연환경과 함께 아우르게 된다면 우드랜즈 모델의 정체가 결코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교육에세이 86



이호연  
명성초등학교 교장

문화란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하다' '개간하다'(to till or cultivate) 또는 '문명이 된 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교양·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즉, 문화란 인간이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한 창조품이다. 그러므로 문화란 '경작하다' '개간하다'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씨를 뿌리고 곧바로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형성된다.

해마다 추석 명절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 중에 벌초(伐草)하는 관습이 있다. 산업사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사람들에게 벌초의식은 어렵고 힘든 일인 것만은 사실이다.

모 언론기관에서 장묘문화에 대

한 설문조사에서 화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연령대별 화장률로 20세 이하 90.3%, 30대 87.5%, 40대 79.1%, 50대 71.1%, 60대 56%, 70대 50.4%, 80세 이상 44.4% 등 나이가 많을수록 화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일수록 화장에 대한 비율이 높은지 이유를 알아보니 생활 연구지로부터 고향까지가 원거리이고, 묘를 만들 땅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벌초(伐草)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세대들에게 벌초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벌초(伐草)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순안 안정복(安鼎福)이 '한정진(安正進)의 질문에 답하는 글'에서 3월 상순의 벌초(伐草)는 당(唐)나라 '개원절(開元禮)'에서 비롯되었지만 한식(寒食)에 묘소에 참배하고 추수에 벌초(伐草)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於禮無見)고 말한 것처럼 추수에 하는 벌초(伐草)는 중국에는 없던 우리만의 풍속이다.

우리만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

벌초(伐草)

이하여 벌초(伐草)하는 것은 자손의 효성의 표시요, 마땅한 도리다. 필자는 어린 시절 벌초 하면 가정에서 부모님께 먼저 세배를 드린 후에 아침 식사를 한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님을 따라 성묘를 다녔다. 조상의 묘가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사방(山池四方)에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출발하면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에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어렸을 때 성묘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설이 되면 성묘 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즉, 설 때의 성묘와 추석 때의 벌초는 우리 민족의 효심(孝心)이 만드는데 독특한 풍습이라는 개념이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묘와 벌초를 하는 습관을 정착시켜 준다면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성묘와 벌초(伐草)를 할 수 있다.

벌초(伐草)

흐린 초점/메마른 응시/상실된 균형감각/허우적거림/살.../안세기가 지났어도/귀에 쟁쟁한/할아버님 목소리/"오연아! 인나쳐라! 토란 잎 그늘에서/한낮의 뜨거움 피하하고/살에 적상 술술바람으로/더위를 견디셨던/할머님/굴방대 달배 굵은 소리/된장찌개 굵은 소리/메게한 니고된 향내/주름살 계곡 흐르는 땅./양쪽강 깊은 물줄기/살의 의지/땀방이 터렸고/강정 기록은/굴강산 만물생/몸소 실천으로 살의 진면모를 보여주셨고/적대기로 지게 땀물 두들기시며 노래 부르셨던 아버님./마땅히 할 말도 가슴에 묻었으니/적가슴 타는 것은 당연했던 어머니/막걸리 서너 사발에/장구 걸머지면/한 밤은 거둔히 지새우셨다./용으로 세상 시를 살라먹고/생전 호적 입적 못하시고/한(恨)을 가슴으로 부둥켜 앉고/한 술으로 동짓달 긴 밤 지새우셨다./장초에 묻힌 사연/애초기가 '뚜르르릉' 이끌어 낸/벌초(伐草).

Advertisement for 'Sarangbang Furniture' (사랑방가구) and 'Sangil Riba Furniture' (상일리베가구).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living room with a TV and a coffee table. Below it, there are smaller images showing various furniture pieces like beds, desks, and sofas. The text includes the slogan '최고의 제품 · 최고의 디자인 · 최저의 가격' (Best products · Best design · Lowest prices) and '사랑방가구 · 상일리베가구' (Sarangbang Furniture · Sangil Riba Furniture). At the bottom,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연중무휴 상담환영(혼수·입주외) 차량운행(예약)합니다. ☎ 031)536-0563' (Open all year, welcome consultation (except for alcohol and moving), car service (reservation) provided. ☎ 031)536-0563). A map shows the location of the store in the Sangil Riba area.